



중국 손해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 현황 및 전망

이소양 연구원

■ 보험회사 신용평가기관인 A.M. Best¹⁾에 따르면 최근 중국 손해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임.

- 중국 손해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²⁾은 2010년 65.0%에서 2012년 88.0%까지 상승하였으며 2013년에는 98.0%, 2014년에는 105%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됨.
- 중소형 손해보험회사들의 지급여력비율은 매우 높은 반면 대형 손해보험회사들의 지급여력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.
 - 특히 시장점유율 기준 상위 10대 손해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은 2014년 86% 수준일 것으로 추정됨.

〈표 1〉 중국 손해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 추이

(단위: %)

구분	2010년	2011년	2012년	2013년	2014년
전체 보험회사	65	73	88	98	105
상위 10사	53	55	71	79	86
상위 11~20사	108	153	134	146	156
상위 21~30사	107	135	174	191	208
그 외의 보험회사	477	586	532	564	621

주: 일부 손해보험회사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2013년 수치는 추정치이고 2014년 수치는 전망치임.

자료: A.M. Best Research.

■ 중국 대형 손해보험회사들의 지급여력비율이 100% 이하인 주요 원인은 손해보험계약 인수 규모 증가에 따른 요구자본 급증임.

1) Sustainable Profitability Is Key for Healthy Capitalization of China's Non-Life Insurance(2014, 5).

2) 이는 A.M. Best가 중국 손해보험회사들의 지급여력비율을 평가하기 위해 자사의 지급여력비율 모델(Best's Capital Adequacy Ratio, 이하 BCAR)을 이용하여 산출한 결과이며 공식 중국 손해보험회사들의 지급여력비율이 아님. BCAR= 위험조정자본(risk-adjusted capitalization)/순요구자본(net required capital)

■ 향후 중국 손해보험회사들의 경영성과가 개선되면 지급여력비율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.

- 중국 손해보험회사들의 합산비율³⁾이 2012년 94.3%에서 2013년 93.5%로 하락하면 지급여력비율은 2013년 98.0%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.
 - 2013년 중국 손해보험회사들의 합산비율이 97%로 상승하더라도 지급여력비율은 2012년 88.0%보다 높은 92.0%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됨.
- 투자수익률이 2012년 3.4%에서 2013년 5.0%로 상승하면 지급여력비율은 2013년 100.2%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.
- 2013년 수입보험료가 과거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인 21.5%의 속도로 성장할 경우 지급여력비율은 98%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.

■ 또한 중국 자동차보험 요율 자유화가 본격화될 경우 수익성 제고로 지급여력비율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.

■ 다만 중국 손해보험회사들은 적절한 지급여력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지급여력제도 변화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.

- 중국은 2012년 4월부터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 개혁 작업을 추진하였으며 2016년까지 유럽 솔벤시 II와 유사한 지급여력제도를 도입할 예정임.⁴⁾
- 새로운 지급여력제도 시행이 손해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 하락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일부 지급여력이 악화된 보험회사의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보험회사간의 인수·합병이 이루어질 수 있음.

(A.M. Best 등)

3) 합산비율은 손해율과 사업비율을 합친 비율임.

4) 이소양(2014, 3), 「중국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감독체계 개혁 동향」, KiRi Weekly, 보험연구원.